

핵오염수 해양투기 공범 일본 및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

일본은 핵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철회하라!

일본 기시다 내각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8월 24일 개시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해양 생태계 오염 및 파괴를 걱정하는 지구촌 시민의 우려를 뒤로하고 오로지 세계 핵산업 카르텔의 이익만을 좇는 결정을 내렸다.

드넓은 바다에 핵 오염수를 방류하면 희석되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는 막연한 안도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방사성 세슘이 기준치의 180배가 넘는 우력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발견되어 세상을 놀라게 했다. 또한 일본 후생노동성의 2022년도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결과를 보면, 후쿠시마 인근 8개현 농산물의 세슘 검출률은 22%에 달했고, 수산물의 세슘 검출률은 다른 지역 평균보다 약 7배 높았다. 이것이 현실이다. 후쿠시마 핵사고 12년이 지났지만, 인근 땅과 바다는 여전히 죽음의 늪이다.

누차 밝혀왔듯이 바다는 못 생명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의 것이다. “태평양은 일본의 핵 쓰레기통이 아니다!”라는 구호를 잘 새겨야 한다. 일본 기시다 내각의 역사적 사명이 있다면, 핵 오염수를 지난 12년간 육지에 보관해 왔듯이 앞으로 최소 100년간 육지에 보관하는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미 많은 방법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전혀 없다. 핵산업계에 그 책임을 엄중히 묻기만 하면 될 일이다!

일본 기시다 내각이 끝끝내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감행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도요타, 소니, 유니클로 등 유수의 일본 상품이 또다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친일 행보도 결코 일본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한다. 우리 국민은 노도와 같이 일어나고 경주 시민도 불매 운동 등 해양투기 중단에 앞장설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에 엄중히 경고한다. 국민의 혈세를 써가며 후쿠시마 핵 오염수 홍보 대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추태를 온 국민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일본 상품 불매운동 목록에 ‘윤석열 정권’이 등재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늦었지만, 정부는 일본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아울러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 금지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에게 용서받을 마지막 기회다.

- 일본은 핵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철회하라!
- 일본 대변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 정부는 일본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 정부는 일본 식품 전면 수입 금지하라!

2023년 8월 23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경주시민행동’에 참여하는 단체 및 개인 일동

*문의: 집행위원장 010-4660-1409